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교과전담과 담임교사 수업에 의한  
중학교 음악성적 비교 연구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임 자 경

교과전담과 담임교사 수업에 의한  
중학교 음악성적 비교 연구

김미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임 자 경

# 인 준 서

임자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음악교과전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음악전담교사가 음악수업을 했을 때 학업성취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음을 증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하여 중학교 2학년 학생 214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초등학교 때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웠던 학생은 121명, 담임교사에게 배웠던 학생은 93명이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교사에게 배웠던 경험보다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웠던 경험이 중학교에 진학 한 후 음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학생들은 적당한 초등학교 음악교사로 담임교사보다 음악전담교사를 선호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의 흥미도는 전담반과 담임반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넷째, 중학교 음악수업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운 학생들과 담임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하기 위하여 음악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음악성적을 조사하였다.

음악성적을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담반 학생들이 담임반 학생들 보다 5점정도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둘째, 전담반 학생들의 성적은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웠던 학기수와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담임반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때 음악전담교사가 음악을 가르친 학생들과 담임교사가 음악을 가르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음악성적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음악전담교사가 음악수업을 했을 때 학업성취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

다. 따라서 이 연구가 음악교과전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어지길 바란다.

# 목 차

## 국문초록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2
3. 연구의 제한점 .....	3
II. 이론적 배경 .....	4
1. 초등음악교육의 중요성 .....	4
2. 음악교과전담제의 필요성 .....	6
3. 선행연구 .....	11
III. 연구 방법 .....	15
1. 연구 대상 .....	15
2. 연구 도구 .....	15
3. 연구 기간 .....	16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7
1.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17
2. 음악성적 비교 .....	40
3. 분석결과 .....	44
V. 결론 .....	50

##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 목 차

<표 1> 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음악적 능력의 발현시기.....	5
<표 2> 교사에 따른 분류.....	15
<표 3> 사교육에 따른 분류.....	15
<표 4> 설문지의 문항 구성.....	16
<표 5> 초등학교 때 음악교사 분류.....	17
<표 6>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웠던 총 학기.....	17
<표 7>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과 중학교 음악성적과의 관계.....	19
<표 8> 도움되는 영역.....	20
<표 9> 초등학교 음악교사로 적당한 사람.....	21
<표 10> 음악전담교사가 적당한 이유.....	22
<표 11> 담임교사가 적당한 이유.....	23
<표 12> 교사의 반주 실력.....	24
<표 13> 음악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25
<표 14>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 시행 내용.....	26
<표 15> 음악교사가 갖추어야 할 것 .....	27
<표 16> 초등학교 때 수업의 흥미.....	28
<표 17> 음악수업과 음악성적에 따른 초등수업 흥미도 교차분석.....	29
<표 18> 초등학교 때 수업 치중 부분.....	30
<표 19> 중학교 수업의 흥미.....	31
<표 20> 음악수업과 음악성적에 따른 중등수업 흥미도 교차분석.....	32
<표 21>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업 흥미도 교차분석.....	34
<표 22> 중학교 수업 치중 부분.....	35
<표 23> 현재 음악 사교육 유무.....	36
<표 24> 사교육 받은 기간.....	37
<표 25> 음악 사교육이 현재의 음악성적에 미치는 영향.....	38
<표 26> 음악 사교육이 현재의 성적에 도움이 되는 부분.....	39

<표 27> 전담반과 담임반 학생들의 평균 점수.....	40
<표 28> 수원 중학교 학생들의 영역별 평균 점수.....	41
<표 29> 전담반 학생들의 학기별 성적 평균 점수.....	42
<표 30> 현재의 음악성적에 미치는 영향.....	43
<표 31>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 흥미도.....	43
<표 32> 중학교 음악수업 흥미도.....	44

## 그림목차

<그림 1> 2학기 동안 배운 학생.....	18
<그림 2> 4학기 동안 배운 학생.....	18
<그림 3>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과 중학교 음악성적과의 관계 .....	19
<그림 4> 도움되는 영역.....	20
<그림 5> 초등학교 음악교사로 적당한 사람.....	21
<그림 6> 음악전담교사가 적당한 이유 .....	22
<그림 7> 담임교사가 적당한 이유.....	23
<그림 8> 교사의 반주 실력 .....	24
<그림 9> 음악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25
<그림 10>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 시행 내용.....	26
<그림 11> 음악교사가 갖추어야 할 것 .....	27
<그림 12> 초등학교 때 수업의 흥미.....	28
<그림 13> 초등학교 때 수업 치중 부분.....	30
<그림 14> 중학교 수업의 흥미.....	31
<그림 15> 중학교 수업 치중 부분.....	35
<그림 16> 현재 음악 사교육 유무.....	36
<그림 17> 사교육 받은 기간.....	37
<그림 18> 음악 사교육이 현재의 음악성적에 미치는 영향.....	38
<그림 19> 음악 사교육이 현재의 성적에 도움이 되는 부분.....	39
<그림 20> 전담반과 담임반 학생들의 평균 점수.....	40
<그림 21> 수원 중학교 학생들의 영역별 평균 점수 .....	4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인간은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난다. 작은 씨앗이 여러 조건의 환경에 의하여 거목으로 성장하듯이 인간에게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을 자극시킨다면 인간의 잠재력은 뛰어난 재능으로 발달하게 된다. 특히 다른 능력에 비하여 조기에 발달하는 음악적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지니고 있는 음악적 잠재력을 가능한 일찍, 좋은 환경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즉, 환경은 인간을 변화·개발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음악을 교육함에 있어서 환경이란 교사, 교실, 교재, 교구 등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교육적 환경은 교사이다. 헤르바르트(Herbart)의 “인류의 장래는 교사수중에 달려있다”<sup>1)</sup>는 주장은 교사의 중요성을 뒷받침해 준다.

고든(Gordon)<sup>2)</sup>은 모든 학습자들이 선천적으로 일정 수준의 음악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학습 초기의 개발 정도에 따라서 그 학습자의 음악적 가능성이 유동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대략 초등학교 시기까지를 음악적 가능성이 개발될 수 있는 한계 연령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 좋은 환경으로 음악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음악적 능력은 충분히 발달하는 것이다.

한국의 초등학교는 학급담임제 체제가 행해지고 있다. 학급담임제란, 한 명의 교사가 하나의 학급을 맡아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10개 교과와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와 특별활동지도까지를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1인의 담임교사가 10개의 교과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10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지도내용에 대하여 완전한 수업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고학년 담임의 경우 모든 교과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주당 32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현실에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업준비를 한다는 것은 많은 부담이

1) 안규, (1973), 신교육 원리, 학문사, p.244.

2) 장호, (2006), 중등학교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예술, p.73.

따른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과인 음악·미술·체육·영어를 지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벅찬 일이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면서 초등교사의 수업시수 경감과 수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음악·미술·체육·영어 교과에 한하여 1992년부터 교과전담제를 시행하게 되었다.<sup>3)</sup>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sup>4)</sup>에 의하면 전국의 교과전담교사 수는 1만 4968명으로 법적 정원인 1만7700명의 확보율에 84.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음악교과전담교사는 전국 5733개의 학교 중 3018개의 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음악전담교사율은 52.6%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교과전담제는 시행 15년이 지났지만 이와 같은 낮은 시행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실제로 담임교사들의 수업부담을 2-3시간 정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내었으며 교육의 질 향상 면에서도 전담교과에 대한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교과전담제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교과전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음악전담교사가 음악수업을 했을 때 학업성취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 2. 연구 문제

다음은 이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들이다.

첫째, 초등학교 때 음악전담교사에게 음악을 배운 학생들의 중학교 음악성  
적은 담임교사에게 음악을 배운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  
는지 조사한다.

3) 임미경 외, (2003), 교육인적자원부, 교과교육 전담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p.4.

4) 교육인적자원부, (2006), 주요정책자료, 1631번 초등 교과전담교사 현황, <http://www.moe.go.kr/>

둘째, 초등학교 때 음악전담교사에게 음악을 배웠던 것이 중학교 음악성적  
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한다.

셋째, 학생들의 음악교과 인식도를 조사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소재의 1개 중학교와 수원시 소재의 1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있다.

둘째,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음악 사교육(레슨)을 받은 경험이 있  
는 학생들의 음악성적은 조사에서 제외시킨다.

셋째, 조사 방법으로 이 연구를 위해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므로 도구  
의 객관적 타당도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이기 때문에 전담교사의 음악 전공여  
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현재 교과전담제 시행은 학교실정에 따라 매년 변경되고 있다. 따라  
서 연구 대상 분류에서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운 기간 중 1학기 이상 배  
웠던 학생들을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운 학생들로 포함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초등음악교육의 중요성

페스탈로치(Pestalozzi)<sup>5)</sup>는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자연주의 학습방법’에서 인간의 본성은 감성, 지성, 육체의 세 개의 기본 능력으로 되어 있으며 이상의 세 분야 즉, 정서적인 면, 지능적인 면, 그리고 육체적인 면의 능력이 균등히 개발되어 통합되어야 완전한 인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서적인 면이며 정서교육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음악교육임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페스탈로치의 주장은 인격과 성격이 형성되는 초등학교 시기의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음악학자인 고든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68%는 평균의 음악적 능력을 가지고, 14%는 평균이상이지만 매우 높지는 않고, 14%는 평균 이하지만 매우 낮지는 않은 음악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2%는 매우 높은, 2%는 매우 낮은 음악적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의 책 ‘*Learning Sequence in Music*’에서 주장하고 있다.<sup>6)</sup> 이 연구의 결과처럼 모든 사람은 음악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악적 능력은 다른 능력에 비하여 조기에 발달한다. 특히 음을 변별, 인지, 이해하는 감각력인 청각은 출생 시에는 아직 미발달상태이고 생후에 빠르게 발달한다. 보통 생후 2개월 정도면 인성을 변별할 수 있게 되고, 5개월부터 6개월 이후에는 물체의 소리를 듣고 가리며 음원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 후 음의 변별 능력은 급속하게 발달하는데, 10세경을 정점으로 하강하는 경향을 보인다.<sup>7)</sup>

5) 최시원, (1996), 음악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서출판 다라, p.185.

6) Edwin E. Gordon, (2003), *Learning Sequence in Music* (Chicago: GIA Publications), p.328.

헤커(Haecker)와 쯔(Ziehen)의 조사에서도 음악적 능력은 10세까지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10세 이후의 감소가 매우 급속함을 보이고 있다(표 1).<sup>8)</sup> 따라서 출생 시부터 대략 초등학교 시기까지가 음악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음악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음악적 능력은 충분히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표 1> 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음악적 능력의 발현시기<sup>9)</sup>

연령	2-5세	6-10세	11-15세	16-20세	총계
조사대상 인원 (남)	131 46.1%	106 37.3%	38 13.4%	9 3.2%	284
조사대상 인원(여)	74 47%	68 43.8%	13 8.3%	2 1.3%	
					157

피아제(Piaget)는 어린시절의 인지발달을 연령에 따라 크게 4단계(감각-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구분하였다. 4단계 중 초등학교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며 보통 7세에서 11세까지를 말한다. 이 단계의 아동들은 논리적 추리력을 갖고 사고가 안정적이며 조직적이다. 그러나 사고는 현실에 존재하고 실제 사실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 시기에 습득하는 주요 특징은 탈집중화, 보존성, 서열화 등이다.<sup>10)</sup>

피아제의 인지발달론과 음악교육과의 관계를 설명한 오브라이언(O'Brien)에 의하면 구체적 조작 단계의 아동은 보존성이 생김으로서 주어진 음이 언제나 일정한 음높이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서열화가 생기면서 음을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정돈할 수 있고 음색을 그룹으로 묶을 수 있으며 여러계와 세계가 강도의 변화에 따른 순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다.<sup>11)</sup> 따라서

7) 이진우 외, (2004), 유아 음악 교육, 창지사, p.22.

8) 이용일, (2003), 음악교육학개론, 현대음악출판사, p.48.

9) G. Révész "Introduction to Psychology of Music" 재인용.

10) 이옥형 외, (2005), 교육심리학, 집문당, pp.85-86.

구체적 조작기에 이르러서야 음악의 요소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성경희는 음악의 보존에 있어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가 학습의 정점이며 음악의 제반 개념을 거의 획득할 수 있다는 뜻으로 4학년 이전까지의 음악 수업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sup>12)</sup>

따라서 음악학습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사물의 관계적 측면을 깨닫고 음악의 요소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음악의 기본개념을 획득할 수 있는 구체적 조작기이며 이는 초등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물론 감각·운동기, 전 조작기에 지속적으로 음악학습이 행해진 후 구체적 조작기에 이르면 음악을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쉽고 높아져 음악적 능력은 정점에 다다르게 된다. 계속해서 음악적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형식적 조작기에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2. 음악교과전담제의 필요성

교과전담제<sup>13)</sup>란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자기 학급을 대상으로 전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그 중에서 특정과목에 한하여 자기 학급 뿐만 아니라 남의 학급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즉 ‘학급담임제<sup>14)</sup>’를 근간으로 하면서 ‘교과담임제<sup>15)</sup>’를 약간 가미한 제도를 가리킨다. 이는 담임교사 혼자 10여개 교과, 주당 32시간을 가르쳐야 하는 열악한 초등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음악·미술·체육과 영어 교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었다.

1960년대 초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에서는 음악·미술·체육·과학에 한정하여 교과전담제를 실험적으로 적용하였다. 그 후 한국교육개발원

11) 길애경 외, (1996), 초등음악지도법, 수문당, pp14-15.

12) 성경희, (1988), 음악과교육론, 갑을출판사, p.162.

13)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교육학용어사전, 도서출판 하우, p.83.

\*교과전담교수제와 교과전담제는 같은 용어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교과전담제로 칭한다.

14) 한 사람의 교사가 한 학급을 담당하여 그 학급의 전 교과 또는 대부분의 교과를 가르치는 조직형태.

15) 한 교사가 한 교과 또는 상호간에 관련성이 깊은 몇 개의 교과를 담당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형태.

에서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의 일환으로 1975년부터 예·체능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환수업의 형태로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교과전담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1979년도에는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와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 예·체능 교과를 중심으로 4, 5, 6학년에 한정하여 교과전담제를 실험·연구하였으나 교과전담제의 시행이 제도로 실시되지 못하였다.<sup>16)</sup>

교과전담제 제도의 시행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들로부터 비롯된다. 교원단체들은 이 무렵 초등교사의 수업부담 경감방안으로 교과전담제의 시행을 촉구하였고, 이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 교육부는 1991년 7월 16일에 발표한 제7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교육부문 계획안에 초등학교 예·체능 교과전담제의 단계적 적용을 확정하여 포함하였다. 1992년 3월 6일자로 개정된 교육법 시행령에는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1999년에는 ‘교원자격검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초등교사의 교사 자격증에도 전담교과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7)</sup>

1992년 교육부의 시행 방침<sup>18)</sup>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과의 긴밀한 인간관계가 중시되는 초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담임 교사제를 근간으로 하되 일부 교과에 전담교사를 두어 교과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고학년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둘째, 전담교사는 음악·미술·체육·자연·실과 등 비중이 큰 교과 중 학교 실정에 따라 필요한 교과를 선택하여 시행한다.

셋째, 실시 대상 학년은 4, 5, 6학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3학년에도 부분적으로 시행한다.

넷째, 학교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및 학교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강구하여 자율적,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

16) 임미경 외, (2003), 전계서, p.1.

17) 임미경 외, (2003), 상계서, p.2.

18) 교육부, (1992), 지역실정에 맞는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 실시방안 협의자료, 1992. 1. 16, p.2.

다섯째, 제7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기간 중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여섯째,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평균 주당 수업 시수를 현 28.5 시수에서 연차적으로 25 시수로 경감한다.

그러나 시행 15년째를 맞고 있는 교과전담제는 그 취지와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부실한 내용과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5년 10월 1일자 한겨레신문<sup>19)</sup>은 교과전담제의 현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첫째, 시·도 교육청마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서로 달라서 교과전담제 운영 형태가 교육청별로 다양각색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된 이유는 법 규정이 불완전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인의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2항)’는 교원 배치 기준령 때문이다.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는 조문을 근거로 시·도 교육청에 따라 교과전담교사를 정원의 40% 이하로 배치하기도 하고, 50%를 배치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둘째,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해마다 교과전담제 과목이 원칙 없이 변경되면서 운영된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특정 과목을 교과전담제로 고정하여 운영하고 싶어도 교사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해 교과전담교사로 배정된 교사가 영어와 음악 교과를 지도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미술이나 체육 교과를 지도하겠다고 할 경우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전담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생들의 요구와 실태에 따른 학생 중심의 교과전담제이기보다는 교과전담교사를 맡게 된 교사의 처지에 따른 교사 중심의 교과전담제이다.

셋째,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해마다 교과전담을 하는 교사가 변경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급 담임을 원하기 때문에 그 해 학교에 처음 전입한 교사가 교과전담을 맡는 경우가 많고, 전입한 교사들 가운데

---

19) 한겨레 신문, 2005년 10월 1일, 초등 예체능 과목 전담교사에게 맡기자, 18면.

서도 그 학교에 전입한 서열에 따라 뒤쪽에 해당하는 교사부터 반강제적으로 교과전담을 맡게 한다. 또한 교사 개인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학급 담임을 맡기 어려운 형편일 때 교과전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성 있는 현실에도 교과전담제는 교육의 질 향상 면에서 전담교과에 대한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음악 교과전담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훌륭한 음악 교사들은 또한 훌륭한 음악인들이다. 음악 교사들이 악기나 노래를 전공하는 사람만큼 연주를 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반드시 음악을 잘 알아야 한다. 남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sup>20)</sup> 호퍼(Hoffer)는 음악교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 음악에 대한 기술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즉, 음악에 대한 기술은 듣는 기술, 음악사와 음악 문헌에 대한 지식, 실기 지도에 대한 기술 등 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음악적 기술은 단기간 내에 습득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것이다.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음악과 성격에는 “음악 교과는 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며,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음악적 능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애호심을 함양하게 함으로써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활화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sup>21)</sup>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는 아동들이 음악을 학습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기본적인 음악적 개념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겠다. “다른 교과와는 달리 보다 특별한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체능 교과나 특기교과는 아동 교육의 신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sup>22)</sup> 따라서 음악적 전문

20) C. R. 호퍼, 안미자 역, (2001), 음악교사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70.

21) 교육인적자원부, 음악과 교육과정 2007 -79호[별책12], p.1.

22) 권민정, (2001),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p.8.

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사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의 초등교사 대부분은 교육대학의 4년 동안 양성되어진다. 그 기간 동안 음악교과를 포함한 모든 교과의 내용을 배우고 교과 지도 방법까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음악교과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음악적 기술을 갖춘 음악교사는 기대하기 어렵다. 2003년 4월 21일자 한겨레 신문<sup>23)</sup>에 의하면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은 교육대학에서 체계적인 예체능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선학교에 배치된다고 한다. 어떤 교사는 “교대에서 예체능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전반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대에서 익힌 지식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교사가 된 뒤 특히 음악에 대해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배워 나름의 수업방법을 터득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의 인터뷰 기사는 초등음악교과의 현실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음악을 통한 풍부한 음악적 정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자질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아무리 좋은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교사들의 자질이 낮고 교직에 임하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교육의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sup>24)</sup>

미국 음악 교육자협회(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MENC)의 교사교육위원회(Teacher Education Commission)에서 제출한 ‘음악교사교육: 최종보고서(Teacher Education in Music: Final Report)’에는 음악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25)</sup>

첫째, 음악과 교육에 대한 그들의 철학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음악교사는 예술로서의 음악에 대한 사명감과 교육의 구성요소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명감을 말로 혹은 서면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업적인 태도와 활동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3) 한겨레 신문, 2003년 4월 21일, “어떻게 가르쳐야” 교사들 기피과목, 33면

24) 광영우 외, (1998),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론, 교육과학사, p.115.

25) C. R. 호퍼, 안미자 역(1993), 음악교육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30.

둘째, 현대 교육사상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음악 교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아야 하며 이러한 지식을 음악지도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음악교사는 교수의 매개체에 친숙해야 하며, 교육적 조직체에서 구상하는 다양한 계획도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광범위한 음악의 레퍼토리를 학생들의 음악학습 문제점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포괄적인 음악적 자원을 알고 있으면 음악교사는 다양한 상황에도 상상력 있고 의미심장하게 반응하게 되며 또한 교실 내에서도 이러한 것이 발생하게 요구한다.

넷째, 실제로 예를 들어 보여 줌으로써 교수에 헌신하는 포괄적인 음악인으로서의 개념을 보여준다. 음악적으로 숙달되고 영감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명령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본질적인 자질이다.

이는 음악교사의 교육철학과 음악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자질 있는 음악교사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별력 있게 조직하여 학생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이다.

음악교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교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적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악교과전담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음악교과전담체는 음악적 자질을 갖춘 교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3. 선행연구**

현재 음악교과전담체에 관해 발표된 논문은 약 30여 편 정도이다. 논문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교과전담체의 필요성, 운영현황, 실태조사, 문제점 개선, 교사 자질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이 연구와 관련이 있는 음악교과전담교사가 수행한 음악수업의 성취도나 적성검사에 관한 내용은 총 4편이다.

그 중 위동환(1999)의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와 담임교사가 수행한 음악수업에 따른 음악 이해력 학습 성취도에 관한 연구”는 미 소장이어서 선행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음악교과전담제와 관련 있는 논문 2편과 성취도에 관한 논문 3편을 고찰하였다.

한효진(2004)은 “초등학교 음악교과 전담제의 필요성과 현황 연구”<sup>26)</sup>에서 교과전담제 실시 이후 현황과 음악수업 실태 및 수업 능력을 울산시 초등교사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은 음악교과 전담제가 필요하며 전담교사의 수가 증원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도가 미흡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합리적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김진희(2005)는 “경기도내 초등학교의 음악교과전담교사제 운영 현황 분석”<sup>27)</sup>에서 경기도 내의 음악전담교사들이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음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전담교사로서의 어려움과 시정되기 바라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전담교사의 배정 인원이 부족하다. 둘째, 전담교사를 배정함에 있어서 전담교사의 전공이나 특기보다 학교의 형편을 먼저 생각한다. 셋째, 학교 여건 상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 넷째, 음악전담교사들이 국악, 감상, 창작영역의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등의 결론이 나왔다.

위의 두 논문을 살펴 본 결과 음악교과전담제가 필요하지만 이를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교과전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

문희자(1997)는 “교과전담교사와 담임교사가 수행한 음악수업에 따른 음악 이해 성취도의 차이”<sup>28)</sup>에서 음악전담교사가 음악수업을 했을 때와 학급 담임

26) 한효진, (2004), 초등학교 음악교과 전담제의 필요성과 현황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7) 김진희, (2005), 경기도내 초등학교의 음악교과전담교사제 운영 현황 분석,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8) 문희자, (1997), 교과전담교사와 담임교사가 수행한 음악 수업에 따른 음악 이해 성취도의 차이, 석

교사가 음악수업을 했을 때 아동의 음악 이해 성취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음악 이해력(음악 구성 요소 감지력)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연구반은 음악교과전담제가 실시되는 부산 반여 초등학교에서 1개반을, 비교반은 전담제가 실시되지 않는 인근의 부산 반산 초등학교에서 1개반을 선정하였다. 음악 성취도 검사는 송근후의 "음악 구성 요소의 감지력 검사"를 40분 내 실시 가능하게 문항수와 내용을 재구성한 것을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녹음 자료를 이용하여 실음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적인 음악 성취도 평가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사후 검사 결과, 사전 검사보다 나은 성취를 보였고, 연구반이 비교반 보다는 약간 높은 성취를 보인 것을 보면 음악교과전담교사가 가르친 학생들이 학급 담임교사가 가르친 학생들 보다 음악 이해 성취도에서 약간 높은 성취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음악 성취도 중 7개의 구성 요소별(리듬, 가락, 화음,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로 알아본 차이 검증은 리듬 영역과 음색 영역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김유정(2002)은 “음악교과전담제가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sup>29)</sup>에서 초등학교의 음악전담교사가 음악수업을 했을 때와 담임교사가 음악수업을 했을 때 아동의 음악이해 성취도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검사도구는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것으로 리듬, 가락, 화음,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을 4지선다형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시 서부교육청에 소재한 교과전담제가 실시되는 4개 학교, 전담제가 실시되지 않는 4개 학교 중 6학년 한 학급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리듬영역과 가락영역은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화음,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에서는 교과전담교사가 가르친 학생들이 높은 성취를 보였다.

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9) 김유정, (2002), 음악교과전담제가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종숙(2005)은 “음악교과전담교사가 수행한 초등학교 음악수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sup>30)</sup>에서 초등학교 음악수업부문에서 음악교과전담교사가 수행한 초등학교 음악수업의 성취도를 학급담임이 수행한 성취도와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가 얼마나 유의미한가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으로는 음악교과전담제가 실시되고 있는 군산 문화초등학교에서 1개 반을 연구반으로 하였고, 비교반은 전담제가 실시되지 않는 인근의 초등학교 1개 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취도 검사는 문희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검사결과 음악전담교사가 가르친 학생들이 학급 담임교사가 가르친 학생들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성취를 보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음악 성취도 평가에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음악교과전담교사가 가르친 학생들의 음악 성취도가 담임교사가 가르친 학생들의 음악 성취도 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 대상에서 음악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제한시키지 않았다. 음악교과는 사교육의 영향에 따라 음악적 능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실험을 위해 음악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제한시키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때 음악전담교사가 음악을 가르친 학생들과 담임교사가 음악을 가르친 학생들 중 음악 사교육을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음악성적의 평균을 비교하기로 한다.

---

30) 유종숙, (2005), 음악교과전담교사가 수행한 초등학교 음악수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서울 소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 126명과 수원 소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 1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배포를 위해 두 학교 모두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였다.

총 244부의 설문지 중 성의껏 답한 214부만을 결과처리에 이용하였다.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운 학생들과 담임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의 성적 비교를 위한 음악성적은 총 214명 중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들의 교사에 따른 분류(표 2)와 사교육에 따른 분류(표 3)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교사에 따른 분류<sup>31)</sup>

	전담반	담임반	총
학생수	121명(56.5%)	93명(43.5%)	214명(100%)

<표 3> 사교육에 따른 분류

	전담반	담임반	총
사교육 받은 학생	53명(46.1%)	35명(53.9%)	88명(100%)
사교육 받지 않은 학생	68명(53.9%)	58명(46.1%)	126명(100%)

#### 2.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음악성적과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음악성적은 전담반과 담임반

31)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의 그룹을 전담반, 담임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의 그룹을 담임반으로 칭함.

의 성적 비교를 위하여 각 학교에 설문지 응답한 2학년 학생들의 1학년 때 음악성적을 요청하였다. 설문지 결과에 따라 전담반과 담임반을 분류한 후 설문지 1번에 기재된 이름과 1학년 때의 반과 번호를 추적하여 학생들의 1학년 때 음악 점수를 각각 평균 내었다. 설문지는 학생들의 음악교과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의 내용 분석을 토대로 개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

<표 4> 설문지의 문항 구성

설문내용	문항내용	문항번호
인적사항	인적사항, 1학년 때 반과 번호	1
음악교사 분류	음악을 가르친 교사분류, 전담교사에게 배운 학기 분류	2-1, 2-2
음악교사에 대한 내용	교사 선호도, 반주 실력, 자질	4-1, 4-2, 4-3, 5, 8
음악수업에 대한 내용	음악수업과 성적의 연관성, 수업시행내용, 수업의 흥미도, 수업치증영역,	3-1, 3-2, 6, 7, 9, 10, 11, 12
음악 사교육에 대한 내용	현재 레슨유무, 레슨 기간, 레슨과 성적의 연관성	13, 14, 15-1, 15-2

### 3. 연구 기간

초등학교 때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운 학생들과 담임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의 음악성적을 비교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음악성적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제작하였으며 제작이 끝난 후 4월 초에 설문지의 문항과 보기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학교 2학년 학생 10명에게 사전 조사를 실시 하였다. 사전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하여 서울 소재 중학교는 4월 19일, 수원 소재 중학교는 4월 27일 배부하여 당일 회수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1번 문항은 1학년 때의 음악성적을 추적하기 위하여 성별, 이름, 1학년 때의 반과 번호, 현재의 번호를 묻는 질문이었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2번 문항부터 분석을 하였다.

#### A. 초등학교 때 음악교사

<표 5> 초등학교 때 음악교사 분류

	음악전담교사 <sup>32)</sup>	담임교사	총
빈도(명)	121	93	214
비율(%)	56.5	43.5	100

초등학교 때 음악교사가 누구였는가를 묻는 질문에 56.5%가 ‘음악전담교사’, 43.5%가 ‘담임교사’라고 답을 해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이 1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웠던 총 학기

배운 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명	8	40	4	32	0	10	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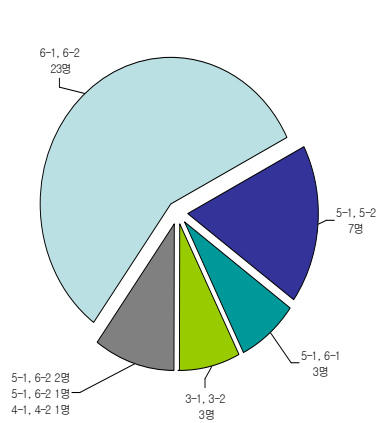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웠던 학생들 중 배웠던 학기는 ‘1학기’ 8명, ‘2학기’ 40명, ‘4학기’ 32명이었으며 ‘3학기’동안 배운 학생들은 4명으로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 6학년 2학기에 배웠다. ‘6학기’동안 배운 학생들은 모두 10명이

32) 설문조사 사전결과 학생들은 ‘음악전담교사’를 ‘음악교사’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설문조사에는 ‘음악전담교사’ 대신 ‘음악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사용하였던 ‘음악교사’를 ‘음악전담교사’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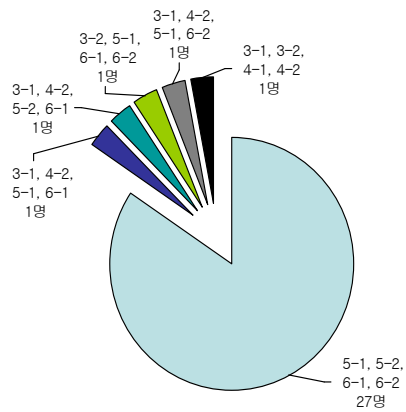
며 4학년, 5학년, 6학년 배웠으며 '8학기'동안 배운 학생들 27명은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학기'와 '7학기' 동안 배운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1, 2, 4학기동안 배운 학생들의 학기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1학기' 동안 배운 학생들은 8명이며 6학년 2학기에 4명이 배웠으며 6학년 1학기에 2명, 5학년 1학기과 3학년 1학기는 각각 1명이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 동안 배운 학생들은 모두 40명으로 총 배운 학기 중 가장 높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자세한 학기별 분류는 <그림 1>과 같다. '4학기' 동안 배운 학생들은 32명이며 자세한 분류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1> 2학기 동안 배운 학생



<그림 2> 4학기 동안 배운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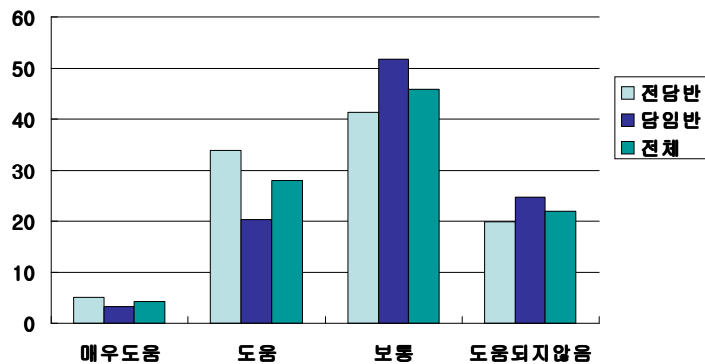


B.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이 현재의 음악성적에 미치는 영향

<표 7>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과 중학교 음악성적과의 관계

항목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과 현재의 음악성적과의 관계				전체
		매우도움	도움	보통	도움되지않음	
전담반	빈도(명)	6	41	50	24	121
	비율(%)	5.0	33.9	41.3	19.8	100
담임반	빈도(명)	3	19	48	23	93
	비율(%)	3.2	20.4	51.7	24.7	100

<그림 3>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과 중학교 음악성적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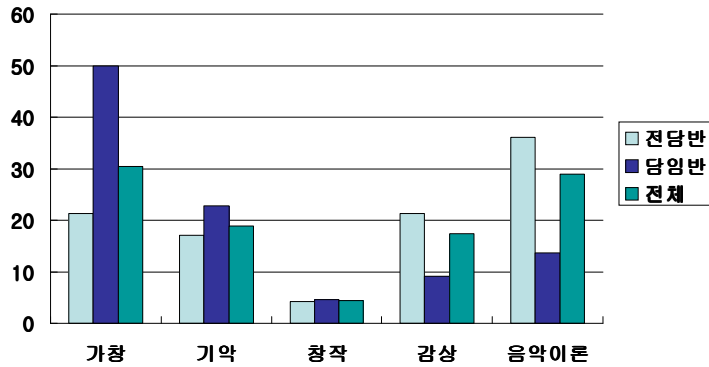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과 현재의 음악성적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전담반과 담임반 모두 ‘보통이다’는 응답이 각각 41.3%와 51.7%로 나와 보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담반에서는 ‘도움된다’ 33.9%, ‘매우 도움된다’ 5.0%로 긍정적인 응답이 38.9%이며 ‘도움되지 않는다’는 19.8%이었다. 반면 담임반은 ‘도움된다’ 20.4%, ‘매우 도움된다’ 3.2%로 긍정적인 응답이 ‘도움되지 않는다’의 24.7%보다도 낮아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담임교사에게 배웠던 경험 보다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웠던 경험이 중학교에 진학한 후 음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 도움되는 영역

항목	도움이 되는 부분					전체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음악이론		
전담반	빈도(명)	10	8	2	10	17	47
	비율(%)	21.3	17.0	4.3	21.3	36.1	100
담임반	빈도(명)	11	5	1	2	3	22
	비율(%)	50.0	22.7	4.6	9.1	13.6	100
전체	빈도(명)	21	13	3	12	20	69
	비율(%)	30.4	18.8	4.4	17.4	29.0	100

<그림 4> 도움되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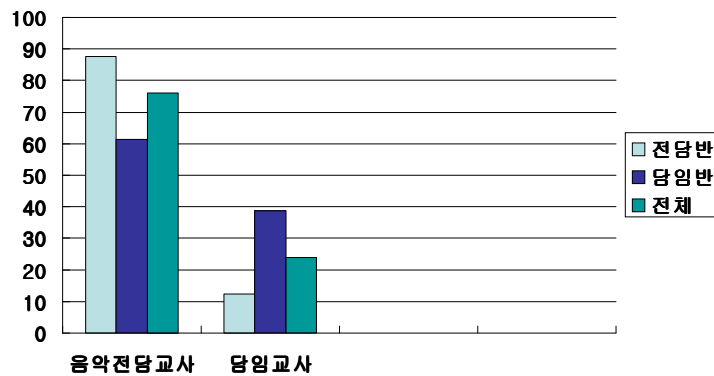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들 중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느 영역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담반은 ‘음악이론’ 36.1%, ‘가창’ 21.3%, ‘감상’ 21.3%, ‘기악’ 17.0%, ‘창작’ 4.3%의 순이었으며 담임반은 ‘가창’ 50.0%, ‘기악’ 22.7%, ‘음악이론’ 13.6%, ‘감상’ 9.1%, ‘창작’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 모두 ‘창작’ 영역이 낮았으며 전담반은 ‘창작’을 제외한 4영역이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담임반은 ‘가창’ 영역에만 집중된 분포를 보였다.

C. 초등학교 음악교사 선호 대상

<표 9> 초등학교 음악교사로 적당한 사람

항목		초등학교 음악교사로 적당한 사람		전체
		음악전담교사	담임교사	
전담반	빈도(명)	106	15	121
	비율(%)	87.6	12.4	100
담임반	빈도(명)	57	36	93
	비율(%)	61.3	38.7	100
전체	빈도(명)	163	51	214
	비율(%)	76.2	23.8	100

<그림 5> 초등학교 음악교사로 적당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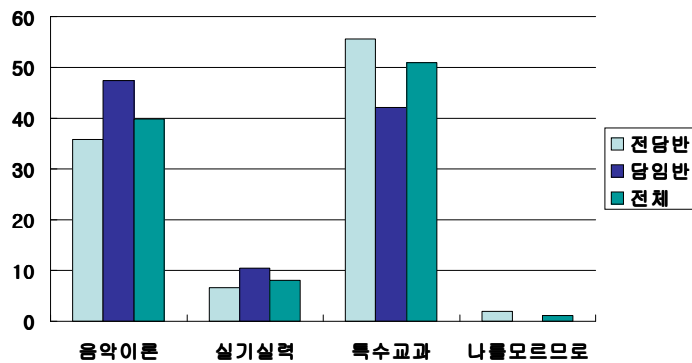


초등학교 음악교사로 적당한 사람은 ‘음악전담교사’라는 대답이 두 그룹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담반 학생들은 87.6%가 ‘음악전담교사’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담임교사’라고 응답한 학생은 12.4%에 불과하여 전담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웠던 경험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담임반 학생들은 61.3%가 ‘음악전담교사’, 38.7%가 ‘담임교사’로 나타났으며 전담반 학생들 보다 ‘담임교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0> 음악전담교사가 적당한 이유

항목		음악전담교사로 대답한 학생들의 이유				전체
		음악이론	실기실력	특수교과	나를모르므로	
전담반	빈도(명)	38	7	59	2	106
	비율(%)	35.8	6.6	55.7	1.9	100
담임반	빈도(명)	27	6	24	0	57
	비율(%)	47.4	10.5	42.1	0	100
전체	빈도(명)	65	13	83	2	163
	비율(%)	39.9	8.0	50.9	1.2	100

<그림 6> 음악전담교사가 적당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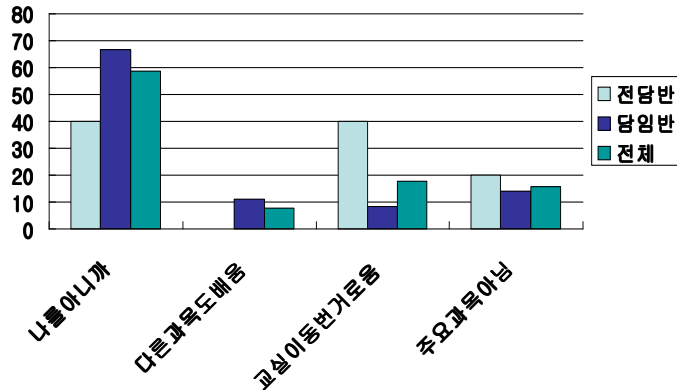


‘음악전담교사’가 적당하다고 대답한 학생들 중 적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그룹이 다른 경향을 보였다. 전담반 학생들은 ‘특수교과이므로 전공자에게 배워야 하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인 55.7%가 응답하였고, ‘음악 이론에 대해 많이 알기 때문’ 35.8%, ‘실기 실력이 좋기 때문’ 6.6%, ‘나를 모르므로 대충해도 되기 때문’ 1.9%의 순이었다. 담임반 학생들은 ‘음악 이론에 대해 많이 알기 때문’ 47.4%, ‘특수교과이므로 전공자에게 배워야 하기 때문’ 42.1%로 두 가지 응답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10.5%는 ‘실기 실력이 좋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50.9%가 ‘특수교과이므로 전공자에게 배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음악교과를 특수교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11> 담임교사가 적당한 이유

항목		담임교사로 대답한 학생들의 이유				전체
		나를 아니까	다른과목도 배움	교실이동 번거로움	주요과목아님	
전담반	빈도(명)	6	0	6	3	15
	비율(%)	40.0	0	40.0	20.0	100
담임반	빈도(명)	24	4	3	5	36
	비율(%)	66.7	11.1	8.3	13.9	100
전체	빈도(명)	30	4	9	8	51
	비율(%)	58.8	7.8	17.7	15.7	100

<그림 7> 담임교사가 적당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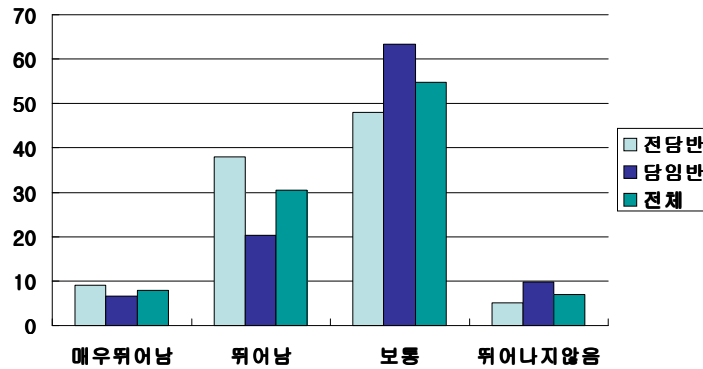
‘담임교사’가 적당하다는 대답을 한 학생들 중 적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담반 학생들은 ‘나에 대해 잘 알기 때문’과 ‘교실 이동이 번거롭기 때문’의 두 보기에서 같은 40.0%의 대답이 나왔으며 ‘주요한 과목이 아니므로 전공자에게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을 20.0%로 응답하였다. 담임반 학생들은 66.7%가 ‘나에 대해 잘 알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주요한 과목이 아니므로 전공자에게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 13.9%, ‘다른 과목도 담임교사에게 배우기 때문’ 11.1%, ‘교실 이동이 번거롭기 때문’ 8.3%로 나타났다.

D. 초등학교 때 음악을 가르친 교사의 반주 능력

<표 12> 교사의 반주 실력

항목		초등학교 때 음악을 가르친 교사의 반주 실력				전체
		매우 뛰어남	뛰어남	보통	뛰어나지 않음	
전담반	빈도(명)	11	46	58	6	121
	비율(%)	9.1	38.0	47.9	5.0	100
담임반	빈도(명)	6	19	59	9	93
	비율(%)	6.5	20.4	63.4	9.7	100
전체	빈도(명)	17	65	117	15	214
	비율(%)	7.9	30.4	54.7	7.0	100

<그림 8> 교사의 반주 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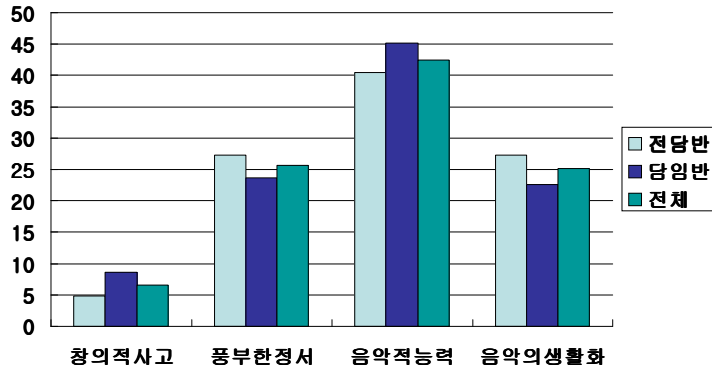
초등학교 때 음악을 가르친 교사의 반주 실력을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4.7% 나왔다. 전담반 학생들은 ‘매우 뛰어났다’와 ‘뛰어났다’의 대답을 각각 9.1%, 38.0%로 47.1%가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뛰어나지 않았다’는 5.0%이었다. 담임반은 ‘매우 뛰어났다’가 6.5%, ‘뛰어났다’가 20.4%로 전담반 보다 긍정적인 응답의 분포가 낮게 나타났으며 ‘뛰어나지 않았다’는 9.7%의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음악전담교사가 담임교사보다 반주 실력이 높았다.

E. 음악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표 13> 음악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항목	음악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전체	
	창의적사고	풍부한정서	음악적능력	음악의생활화		
전담반	빈도(명)	6	33	49	33	121
	비율(%)	4.9	27.3	40.5	27.3	100
담임반	빈도(명)	8	22	42	21	93
	비율(%)	8.6	23.7	45.1	22.6	100
전체	빈도(명)	14	55	91	54	214
	비율(%)	6.6	25.7	42.5	25.2	100

<그림 9> 음악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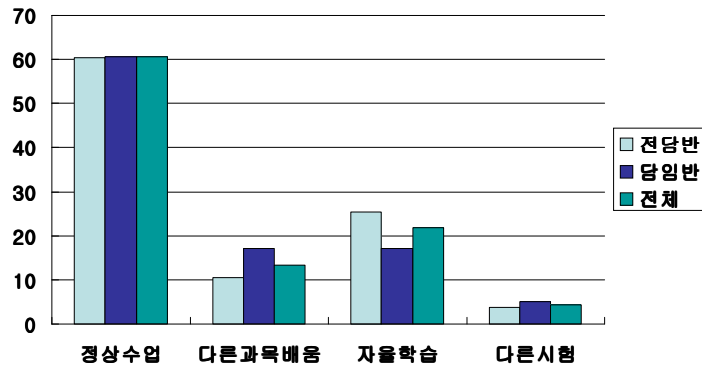
음악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두 그룹 모두 ‘음악적 능력’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전담반 40.5%, 담임반 45.1%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적으로도 42.5%를 차지하였다. 전담반은 그 다음의 순으로 ‘풍부한 정서’, ‘음악의 생활화’가 27.3%로 동률을 이루었으며 ‘창의적 사고’는 4.9%이었다. 담임반 학생들의 응답에서 ‘풍부한 정서’ 23.7%, ‘음악의 생활화’ 22.6%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창의적 사고’는 8.6%였다. 따라서 음악수업에서 창작활동을 많이 하여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F.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 시행 내용

<표 14>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 시행 내용

항목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 시행 내용				전체
		정상수업	다른과목배움	자율학습	다른시험	
전담반	빈도(명)	81	14	34	5	134
	비율(%)	60.4	10.5	25.4	3.7	100
담임반	빈도(명)	60	17	17	5	99
	비율(%)	60.6	17.2	17.2	5.0	100
전체	빈도(명)	141	31	51	10	233 <sup>33)</sup>
	비율(%)	60.5	13.3	21.9	4.3	100

<그림 10>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 시행 내용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전담반, 담임반 각각 60.4%, 60.6%가 ‘매 시간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에 응답하였으며 약 40%의 학생들은 ‘음악 시간에 다른 교과목을 배운 적이 있다’, ‘음악시간에 자율학습을 한 적이 있다’, ‘음악 시간에 다른 과목의 시험을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하여 음악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이 국어나 수학 같은 주요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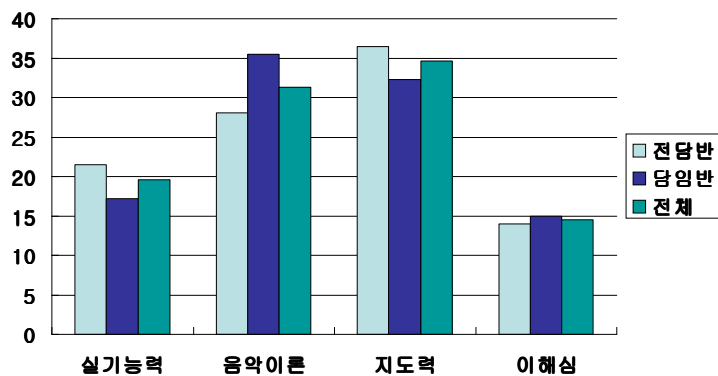
33) 보기 중 2, 3, 4번에 해당하는 ‘다른과목배움’, ‘자율학습’, ‘다른시험’에 대하여 중복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전체 인원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G. 음악교사가 갖추어야 할 것

<표 15> 음악교사가 갖추어야 할 것

항목		음악교사가 갖추어야 할 것				전체
		실기능력	음악이론	지도력	이해심	
전담반	빈도(명)	26	34	44	17	121
	비율(%)	21.5	28.1	36.4	14.0	100
담임반	빈도(명)	16	33	30	14	93
	비율(%)	17.2	35.5	32.3	15.0	100
전체	빈도(명)	42	67	74	31	214
	비율(%)	19.6	31.3	34.6	14.5	100

<그림 11> 음악교사가 갖추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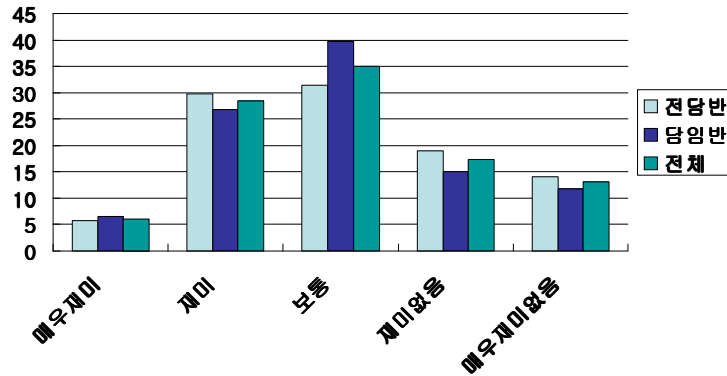
음악교사가 갖추어야 할 것 중 전담반은 ‘지도력’ 36.4%, ‘음악이론’ 28.1%, ‘실기능력’ 21.5%, ‘이해심’ 14.0% 순으로 대답했으며, 담임반은 ‘음악이론’ 35.5%, ‘지도력’ 32.3%, ‘실기능력’ 17.2% ‘이해심’ 15.0%의 순이었다. 두 그룹 모두 ‘지도력’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결과 음악교사의 자질은 학생과 교과목에 대한 지도력이었다. 또한 실기 능력이 뛰어난 교사 보다 음악 이론에 대하여 많이 아는 교사를 선호하고 있었다.

## H. 초등학교 때 수업 내용

<표 16> 초등학교 때 수업의 흥미

항목		초등학교 때 수업 흥미					전체
		매우재미	재미	보통	재미없음	매우재미없음	
전담반	빈도(명)	7	36	38	23	17	121
	비율(%)	5.8	29.8	31.4	19.0	14.0	100
담임반	빈도(명)	6	25	37	14	11	93
	비율(%)	6.5	26.9	39.8	15.0	11.8	100
전체	빈도(명)	13	61	75	37	28	214
	비율(%)	6.1	28.5	35.0	17.3	13.1	100

<그림 12> 초등학교 때 수업의 흥미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의 흥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전담반의 31.4%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으며 '매우 재미있었다' 5.8%, '재미있었다' 29.8% 였다. '재미없었다'와 '매우 재미없었다'는 각각 19.0%와 14.0%로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의 비율이 비슷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담임반에서도 '보통이다' 39.8%, '매우 재미있었다' 6.5%, '재미있었다' 26.9%, '재미없었다' 15.0%, '매우 재미없었다' 11.8%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 수업의 흥미도는 전담반과 담임반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표 17> 음악수업과 음악성적에 따른 초등수업 흥미도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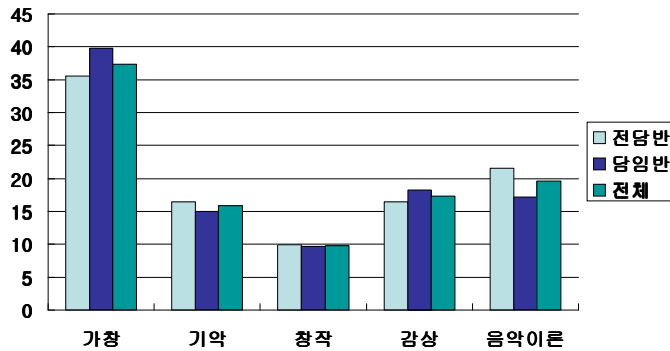
항목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과 현재의 음악성적과의 관계				전체
			매우도움	도움	보통	도움되지않음	
매우 재미	전담반	빈도(명)	1	2	3	1	7
		비율(%)	14.3	28.6	42.8	14.3	100
	담임반	빈도(명)	2	1	3	0	6
		비율(%)	33.3	16.7	50.0	0	100
재미	전담반	빈도(명)	2	20	14	0	36
		비율(%)	5.6	55.5	38.9	0	100
	담임반	빈도(명)	1	7	12	5	25
		비율(%)	4.0	28.0	48.0	20.0	100
보통	전담반	빈도(명)	3	13	14	8	38
		비율(%)	7.9	34.3	36.8	21.0	100
	담임반	빈도(명)	0	9	19	9	37
		비율(%)	0	24.3	51.4	24.3	100
재미없음	전담반	빈도(명)	0	4	13	6	23
		비율(%)	0	17.4	56.5	26.1	100
	담임반	빈도(명)	0	0	12	2	14
		비율(%)	0	0	85.7	14.3	100
매우 재미없음	전담반	빈도(명)	0	2	6	9	17
		비율(%)	0	11.8	35.3	52.9	100
	담임반	빈도(명)	0	2	2	7	11
		비율(%)	0	18.2	18.2	63.6	100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과 현재의 음악성적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던 3-1번 문항의 결과와 초등학교 때 수업의 흥미도를 교차분석 해 본 결과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재미있었다’의 긍정적인 대답을 한 비율이 높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부정적인 대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18> 초등학교 때 수업 치중 부분

항목		초등학교 때 수업 치중 부분					전체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음악이론	
전담반	빈도(명)	43	20	12	20	26	121
	비율(%)	35.6	16.5	9.9	16.5	21.5	100
담임반	빈도(명)	37	14	9	17	16	93
	비율(%)	39.8	15.0	9.7	18.3	17.2	100
전체	빈도(명)	80	34	21	37	42	214
	비율(%)	37.4	15.9	9.8	17.3	19.6	100

<그림 13> 초등학교 때 수업 치중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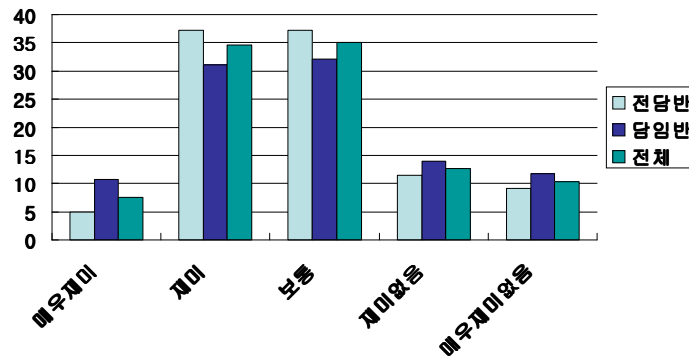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에 치중한 부분에 대해서 전담반과 담임반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두 그룹 모두 ‘가창’영역이 전담반은 35.6%, 담임반은 39.8%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분포는 ‘가창’ 37.4%, ‘기악’ 15.9%, ‘창작’ 9.8%, ‘감상’ 17.3%, ‘음악이론’ 19.6% 였다. 따라서 음악전담교사와 담임교사 모두 ‘가창’ 영역에 많이 치중 했다.

## I. 중학교 수업의 흥미

<표 19> 중학교 수업의 흥미

항목		중학교 수업 흥미					전체
		매우재미	재미	보통	재미없음	매우재미없음	
전담반	빈도(명)	6	45	45	14	11	121
	비율(%)	5.0	37.2	37.2	11.5	9.1	100
담임반	빈도(명)	10	29	30	13	11	93
	비율(%)	10.8	31.2	32.2	14.0	11.8	100
전체	빈도(명)	16	74	75	27	22	214
	비율(%)	7.5	34.6	35.0	12.6	10.3	100

<그림 14> 중학교 수업의 흥미



현재 중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도 조사에서 전담반은 ‘매우 재미있다’ 5.0%, ‘재미있다’ 37.2%, ‘보통이다’ 37.2%, ‘재미없다’ 11.5%, ‘매우 재미없다’ 9.1% 라고 응답했으며 담임반은 ‘매우 재미있다’ 10.8%, ‘재미있다’ 31.2%, ‘보통이다’ 32.2%, ‘재미없다’ 14.0%, ‘매우 재미없다’ 11.8% 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재의 음악수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두 그룹에서 비슷한 응답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중학교에 진학한 후 음악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초등학교 때 음악을 가르친 교사의 대상과는 상관이 없었다.

<표 20> 음악수업과 음악성적에 따른 중등수업 흥미도 교차분석

항목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과 현재의 음악성적과의 관계				전체
			매우도움	도움	보통	도움되지않음	
매우재미	전담반	빈도(명)	1	2	3	0	6
		비율(%)	16.7	33.3	50.0	0	100
	담임반	빈도(명)	2	3	4	1	10
		비율(%)	20.0	30.0	40.0	10.0	100
재미	전담반	빈도(명)	3	20	15	7	45
		비율(%)	6.7	44.4	33.3	15.6	100
	담임반	빈도(명)	1	9	16	3	29
		비율(%)	3.5	31.0	55.1	10.4	100
보통	전담반	빈도(명)	1	15	21	8	45
		비율(%)	2.2	33.3	46.7	17.8	100
	담임반	빈도(명)	0	4	18	8	30
		비율(%)	0	13.3	60.0	26.7	100
재미없음	전담반	빈도(명)	1	3	7	3	14
		비율(%)	7.2	21.4	50.0	21.4	100
	담임반	빈도(명)	0	2	7	4	13
		비율(%)	0	15.4	53.8	30.8	100
매우재미없음	전담반	빈도(명)	0	1	4	6	11
		비율(%)	0	9.1	36.4	54.5	100
	담임반	빈도(명)	0	1	3	7	11
		비율(%)	0	9.1	27.3	63.6	100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과 중학교 음악성적과의 관계에 따른 중학교 수업 흥미도를 교차분석 해 본 결과, 초등학교 때 수업 흥미도(표 17)를 교차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긍정의 비율이 높았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부정의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과 중학교 음악성적과의 관계는 수업 흥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1>의 초등학교 수업의 흥미에 따른 중학교 수업의 흥미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때 수업이 '재미있었다'는 긍정의 대답을 한 학생들 중 45명인 60.8%가 중학교 수업도 재미있다고 대답하였고 '보통이었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중학교 수업도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 수업이 '재미없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 중 32%만이 재미없다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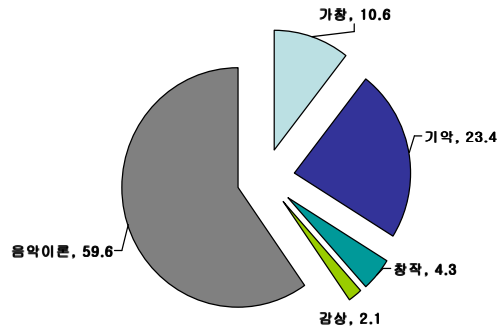
<표 21>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업 흥미도 교차분석

항목			초등학교 때 수업 흥미도					전체
			매우재미	재미	보통	재미없음	매우재미없음	
매우재미	전담반	빈도(명)	1	2	0	2	1	6
		비율(%)	16.7	33.3	0	33.3	16.7	100
	담임반	빈도(명)	1	5	4	0	0	10
		비율(%)	10.0	50.0	40.0	0	0	100
재미	전담반	빈도(명)	3	20	13	4	5	45
		비율(%)	6.7	44.4	28.9	8.9	11.1	100
	담임반	빈도(명)	2	11	11	2	3	29
		비율(%)	6.9	37.9	37.9	6.9	10.4	100
보통	전담반	빈도(명)	1	9	19	13	3	45
		비율(%)	2.2	20.0	42.2	28.9	6.7	100
	담임반	빈도(명)	2	4	16	6	2	30
		비율(%)	6.7	13.3	53.3	20.0	6.7	100
재미없음	전담반	빈도(명)	1	5	5	3	0	14
		비율(%)	7.2	35.7	35.7	21.4	0	100
	담임반	빈도(명)	0	4	4	5	0	13
		비율(%)	0	30.8	30.8	38.4	0	100
매우재미없음	전담반	빈도(명)	1	0	1	1	8	11
		비율(%)	9.1	0	9.1	9.1	72.7	100
	담임반	빈도(명)	1	1	2	1	6	11
		비율(%)	9.1	9.1	18.1	9.1	54.6	100

<표 22> 중학교 수업 치중 부분

항목		중학교 수업 치중 부분					전체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음악이론	
전담반	빈도(명)	42	4	7	17	51	121
	비율(%)	34.7	3.3	5.8	14.0	42.2	100
담임반	빈도(명)	24	7	3	12	47	93
	비율(%)	25.8	7.6	3.2	12.9	50.5	100
전체	빈도(명)	66	11	10	29	98	214
	비율(%)	30.8	5.1	4.7	13.6	45.8	100

<그림 15> 중학교 수업 치중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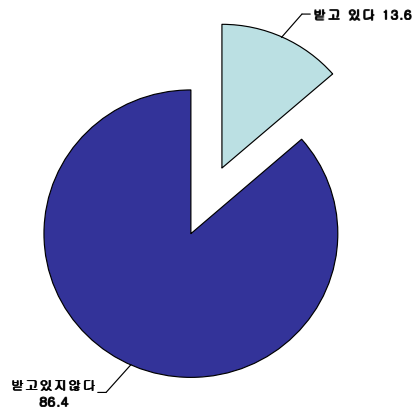
중학교 수업에서 치중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45.8%가 ‘음악이론’이라고 하였다. 10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 초등학교 때 치중했던 영역은 ‘가창’이었으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수업 내용에서 중점을 두는 요소가 달랐다. ‘음악이론’ 다음으로 ‘가창’ 30.8%, ‘감상’ 13.6%, ‘기악’ 5.1%, ‘창작’ 4.7% 순이었으며 ‘창작’은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도 가장 낮은 결과로 나왔다.

J. 음악 사교육<sup>34)</sup> 내용

<표 23> 현재 음악 사교육 유무

항목	현재 음악 사교육 유무		전체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전체	빈도(명)	12	76	88
	비율(%)	13.6	86.4	100

<그림 16> 현재 음악 사교육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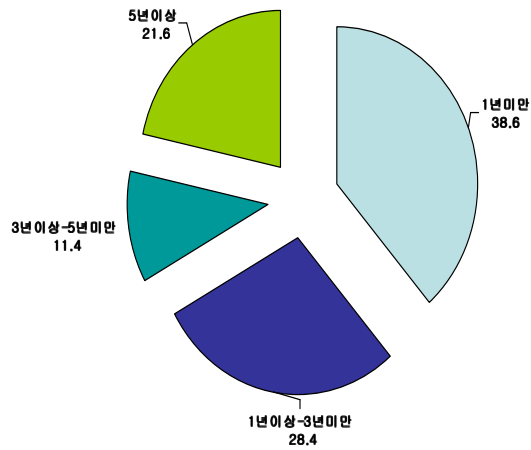
이 문항은 학교 정규수업 외에 음악 사교육을 받은 적 있는 사람만 조사를 했던 것으로 음악 사교육을 받은 적 있는 학생 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체 학생들의 86.4%는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13.6%만이 현재도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받고 있지 않다’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34) 설문조사 사전 결과 학생들은 ‘음악 사교육’을 ‘음악 레슨’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설문조사에는 ‘음악 사교육’ 대신 ‘음악 레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사용하였던 ‘음악 레슨’을 ‘음악 사교육’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표 24> 사교육 받은 기간

항목	사교육 받은 기간				전체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		
전체	빈도(명)	34	25	10	19	88
	비율(%)	38.6	28.4	11.4	21.6	100

<그림 17> 사교육 받은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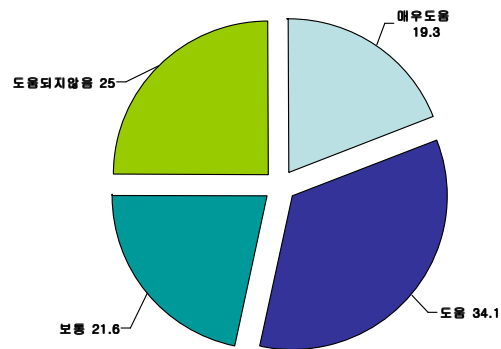


사교육을 받은 기간에 대한 대답으로 38.6%가 ‘1년 미만’이라고 대답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1년 이상 - 3년 미만’이 28.4%, ‘3년 이상 - 5년 미만’ 11.4%, ‘5년 이상’이 21.6%였다.

<표 25> 음악 사교육이 현재의 음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항목		음악 사교육과 음악성적의 연관성				전체
		매우도움	도움	보통	도움되지않음	
전체	빈도(명)	17	30	19	22	88
	비율(%)	19.3	34.1	21.6	25.0	100

<그림 18> 음악 사교육이 현재의 음악성적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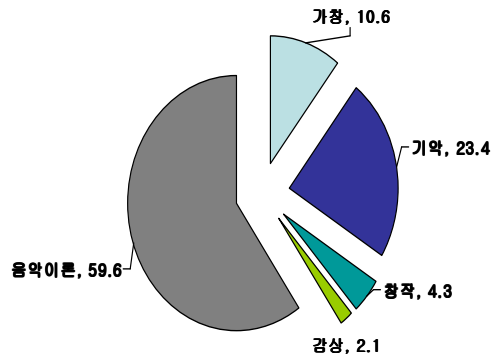


음악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현재 음악성적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도움된다’와 ‘도움된다’가 각각 19.3%, 34.1%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때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이 대답한 ‘도움 된다’보다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악 공교육 보다 사교육이 음악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25.0%, ‘보통이다’는 21.6%로 응답하였다.

<표 26> 음악 사교육이 현재의 성적에 도움이 되는 부분

항목		도움이 되는 부분					전체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음악이론	
전체	빈도(명)	5	11	2	1	28	47
	비율(%)	10.6	23.4	4.3	2.1	59.6	100

<그림 19> 음악 사교육이 현재의 성적에 도움이 되는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음악이론’을 59.6%가 도움된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음악 사교육이 실기능력보다는 이론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음악이론’ 다음으로 ‘기악’ 23.4%, ‘가창’ 10.6%, ‘창작’ 4.3%, ‘감상’ 2.1%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음악 사교육으로 악기 레슨을 많이 받고 있었다.

## 2. 음악성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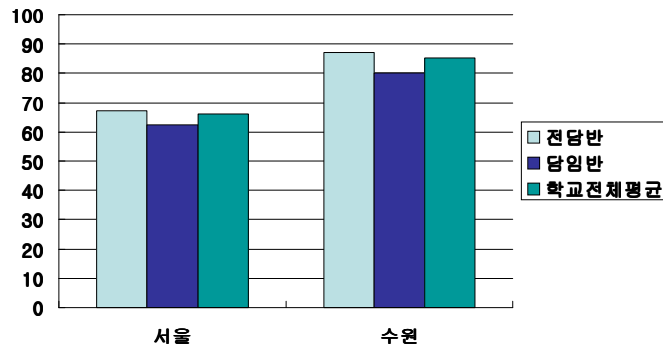
초등학교 때 음악전담교사에게 음악을 배운 학생들의 중학교 음악성적과 담임교사에게 음악을 배운 학생들의 음악성적을 비교한 내용이다. 서울시 소재 중학교와 수원시 소재 중학교의 음악점수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두 학교의 성적을 각각 분류하였으며 음악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조사에서 제외시켰다.

### A. 전담반과 담임반 학생들의 중학교 음악성적 비교

<표 27> 전담반과 담임반 학생들의 평균 점수

항목		전담반과 담임반 학생들의 성적 평균		
		전담반	담임반	학교전체평균
서울 <sup>35)</sup>	점수(점)	67.2	62.3	66.1
수원	점수(점)	87.1	80.1	85.1

<그림 20> 전담반과 담임반 학생들의 평균 점수



전담반 학생들과 담임반 학생들의 성적 비교 결과 서울 소재 중학교와 수원 소재 중학교 모두 전담반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담임반 학생들의 평균 점수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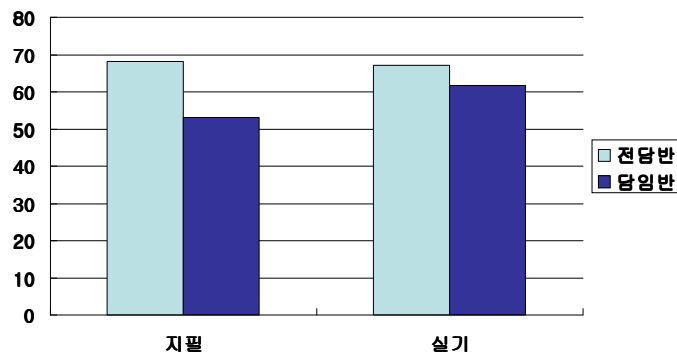
35) 서울 소재 중학교를 '서울', 수원 소재 중학교를 '수원'으로 칭함.

다 약 5점정도 높았다. 또한 전담반의 점수는 학교 전체 평균 점수보다 높았으며 담임반의 점수는 학교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따라서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웠던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배웠던 학생들보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학업성취도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수원 중학교 학생들의 영역별 평균 점수<sup>36)</sup>

항목	전담반	담임반
지필	점수(점) 68.1(100점 만점)	53.2(100점 만점)
실기	점수(점) 67.1(70점 만점)	61.7(70점 만점)

<그림 21> 수원 중학교 학생들의 영역별 평균 점수



학생들의 영역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전담반 학생들의 점수가 담임반 학생들의 점수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기평가보다 지필평가에서 전담반 학생들이 담임반 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36) 평가의 반영 비율은 지필평가 30%, 실기평가 70%이다. 또한 서울 중학교의 성적에는 지필과 실기가 분류되어 있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시켰다.

B. 전담반 학생들의 배운 학기 수와 점수와의 연관성

<표 29> 전담반 학생들의 학기별 성적 평균 점수

항목		전담반 학생들의 학기별 평균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서울	점수 (점)	76.0	58.9	74.0	71.7	-	72.0	-	62.0
수원	점수 (점)	85.6	85.8	-	85.4	-	88.1	-	90.2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웠던 학생 중 배운 학기의 수와 평균 점수와의 연관성은 서울과 수원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서울 중학교의 경우 1학기동안 배운 학생의 평균은 76.0점으로 모든 학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수원 중학교의 1, 2, 4학기 평균 점수는 85.0점으로 비슷했으나 6학과 8학기 동안 배운 학생들의 점수는 각각 88.1점, 90.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웠던 학생 중 배운 학기의 수와 평균 점수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서울 중학교는 비례하지 않았으며 수원 중학교는 대체적으로 비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원 중학교의 전담반 학생들은 배운 학기와 상관없이 담임반 보다 모두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 중학교도 특이사항<sup>37)</sup>을 갖고 있는 2학과 8학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담임반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배운 학기의 수와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전담반이 담임반 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37) 2학기 동안 배운 학생들 중 한 명의 성적이 25.0점이었으므로 이는 전체 평균의 하락에 영향을 많이 미쳤으며 8학기 동안 배운 학생은 총 한 명으로 62.0점을 받았다.

C.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과 성적과의 연관성

<표 30> 현재의 음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항목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이 현재의 음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평균			
		매우도움	도움	보통	도움되지않음
서울	전담반	-	71.7	65.2	70.2
	담임반	44.0	60.4	62.5	63.8
	평균	44.0	66.0	63.8	67.0
수원	전담반	91.0	85.5	88.0	87.8
	담임반	77.0	80.5	77.9	87.7
	평균	84.0	83.0	82.9	87.7

설문조사 문항 3-1번에서 조사하였던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과 현재의 음악성적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의 응답에 따라 점수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응답과 성적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학교의 담임반 경우 ‘매우 도움된다’는 응답을 한 학생들의 평균은 각각 44.0점과 77.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였다. 따라서 전담반 학생들과 담임반 학생들 모두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내용과 실제 성적과는 차이가 났다. 그러나 각 학교의 전담반과 담임반을 비교하였을 때 모든 항목에서 전담반이 담임반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D. 수업의 흥미와 성적과의 연관성

<표 31>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 흥미도

항목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 흥미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평균				
		매우재미	재미	보통	재미없음	매우재미없음
서울	전담반	66.3	78.2	62.2	63.6	74.0
	담임반	69.0	59.2	58.7	64.0	49.7
	평균	67.6	68.7	60.4	63.8	61.8
수원	전담반	83.5	87.8	85.9	89.6	85.0
	담임반	77.0	81.4	80.1	78.0	81.0
	평균	80.2	84.6	83.0	83.8	83.0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의 흥미도와 중학교 성적과의 연관성은 없었다. 서울 중학교의 담임반을 제외하고 ‘매우 재미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점수는 ‘매우 재미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점수보다 낮았으며 수원 중학교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는 ‘재미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었다. 따라서 전담반과 담임반 학생들 모두 성적과 흥미도는 비례하지 않았다.

<표 32> 중학교 음악수업 흥미도

항목		중학교 음악수업 흥미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평균				
		매우재미	재미	보통	재미없음	매우재미없음
서울	전담반	48.0	75.8	60.9	70.3	55.5
	담임반	63.3	70.6	63.5	57.1	53.1
	평균	55.6	73.2	62.2	63.7	54.3
수원	전담반	86.0	85.1	89.4	89.0	82.6
	담임반	73.5	80.5	78.8	86.5	84.5
	평균	79.7	82.8	84.1	87.7	83.5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의 흥미도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음악수업의 흥미도와 성적은 연관성이 없었다. 수원 중학교의 전담반을 제외하고 ‘매우 재미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점수가 가장 낮은 비율이었으며 서울 중학교의 ‘매우 재미있다’의 점수는 가장 낮은 48.0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흥미도에 상관없이 성적이 분포되어 있었고 흥미도와 성적은 비례하지 않았다.

### 3. 분석결과

설문조사와 성적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A. 설문조사 분석결과

총 214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121명은 초등학교 때 음악전담교사에게, 93명은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에게 음악을 배웠다.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운 학생 중 1학기 동안 배운 학생은 8명, 2학기 40명, 3학기 4명, 4학기 32명, 6학기 10명, 8학기 27명으로 분류되었으며 5학기와 7학기는 한 명도 없었다.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과 중학교 음악성적과의 연관성의 설문조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배웠던 경험보다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웠던 경험이 중학교에 진학한 후 음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전담반의 경우 ‘매우 도움된다’와 ‘도움된다’라는 긍정의 대답을 38.9%가 하였으며 ‘도움되지 않는다’는 19.8%였다. 담임반은 긍정적인 대답을 23.6%, 부정적인 대답을 24.7% 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과 중학교 음악성적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서 전담반은 긍정적, 담임반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도움이 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서 전담반은 ‘음악이론’을, 담임반은 ‘가창’ 영역을 가장 높게 응답하여 두 그룹이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두 그룹 모두 ‘창작’ 영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음악교사로 적당한 사람으로는 두 그룹 모두 ‘음악전담교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전담반 학생들의 87.6%가 ‘음악전담교사’라고 대답을 한 결과로 보아 전담반 학생들은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웠던 경험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담임반 학생들은 38.7%만이 ‘담임교사’라고 응답하여 전담반 학생들 보다 초등학교 때 음악을 가르친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음악전담교사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음악은 특수교과이므로 전공자에게 배워야 하기 때문’을 50.9%의 학생들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음악이론에 대하여 많이 알기 때문’, ‘실기 실력이 좋기 때문’, ‘나를 모르므로 대충해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다수의 학생들이 음악교과를 특수교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담임교사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나에 대해 잘 알기 때문’을 58.8% 응답하였으며 ‘교실 이동이 번거롭기 때문’ 17.7%, ‘주요과목이 아니므로 전공자에게 배울 필요가 없

기 때문' 15.7%, '다른 과목도 담임교사에게 배우기 때문' 7.8%순 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과목의 전문성보다는 교사와의 친숙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 음악을 가르친 교사의 반주실력의 질문 결과 전담반은 '매우 뛰어났다'와 '뛰어났다'가 47.1%, '뛰어나지 않았다'가 5.0%로 긍정적인 답을 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담임반도 '매우 뛰어났다'와 '뛰어났다'가 26.9%, '뛰어나지 않았다'가 9.7%로 긍정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전담반이 담임반보다 긍정적인 양상이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양상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음악전담교사가 담임교사보다 반주 실력이 뛰어났다.

음악수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두 그룹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두 그룹 모두 '음악적 능력'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풍부한 정서', '음악의 생활화', '창의적 사고'의 순 이었다. '창의적 사고'는 8.6%에 불과하였으므로 음악수업에서 창작활동을 활발히 하여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두 그룹 모두 약 60%만이 '매 시간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에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이 주요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초등학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음악교사가 갖추어야 할 것으로 전담반은 '지도력'을 36.4%, 담임반은 '음악이론'을 35.5%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담임반의 경우 '지도력'에 '음악이론'과 비슷한 수치인 32.3% 응답한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지도력'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따라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음악교사의 자질은 학생과 교과목에 대한 지도력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실기 능력이 뛰어난 교사보다 음악이론에 대하여 많이 아는 교사를 선호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 수업 내용 중 수업의 흥미도에 대해서 전담반과 담임반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두 그룹 모두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

으며 ‘재미있었다’, ‘재미없었다’, ‘매우 재미없었다’, ‘매우 재미있었다’의 순이었다.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에 치중한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두 그룹 모두 ‘가창’ 영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음악이론’, ‘감상’, ‘기악’ 순으로 세 영역의 분포는 비슷하였다. 그러나 ‘창작’ 영역은 두 그룹 모두 약 9%대로 저조하였으며 앞서 분석한 ‘음악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창의적 사고’라고 대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창작’ 수업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중학교 수업 내용 중 수업의 흥미도는 초등학교 때 음악을 가르친 교사의 대상과는 상관 없이 두 그룹에서 비슷한 응답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음악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치중하고 있는 영역은 ‘음악이론’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45.8%인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와는 달리 이론 수업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창작’ 영역은 4.7%로 초등학교 때 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음악 사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는 학교 정규수업 외에 사교육을 받은 적 있는 88명만 조사했던 것으로 현재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13.6%였다. 따라서 음악은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공교육에 의존하고 있었다. 사교육을 받은 기간은 38.6%가 ‘1년 미만’으로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1년 이상 - 3년 미만’이 28.4%, ‘3년 이상 - 5년 미만’ 11.4%, ‘5년 이상’이 21.6%였다. 음악 사교육이 현재의 음악성적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이 ‘매우 도움된다’ 혹은 ‘도움된다’라는 대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때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이 응답한 긍정의 대답보다 높은 비율이었으므로 음악 공교육 보다 사교육이 음악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음악이론’을 59.6%의 학생들이 선택하였으므로 사교육이 실기능력보다 이론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앞서 분석한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과 현재의 음악성적과의 연관성’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가창’ 영역이 3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도움이 되는

분야가 공교육과 사교육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B. 음악성적 분석결과

전담반과 담임반 학생들의 중학교 음악성적 비교 결과 서울 중학교와 수원 중학교 모두 전담반 학생들이 담임반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학교의 전담반의 평균은 67.2점으로 학교 전체 평균인 66.1점보다도 높은 점수였으며 담임반은 62.3점으로 학교 전체 평균 보다 낮은 점수였다. 수원 중학교에서도 전담반은 87.1점, 담임반은 80.1점이었으며 학교 전체 평균은 85.1점이었다. 따라서 두 학교 모두 전담반 학생들이 담임반 학생들 보다 약 5점정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수원 중학교의 영역별 평균 비교에서 전담반 학생들의 지필성적과 실기성적은 각각 68.1점과 67.1점으로 담임반 학생들의 성적인 53.1점, 61.7점 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필평가에서 전담반 학생들의 성적이 높게 나타났다.

전담반 학생들 중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웠던 학기의 수와 음악성적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중학교의 8학기 동안 배웠던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90.2점으로 가장 높았고 6학기 동안 배웠던 학생들도 88.1점으로 8학기 동안 배웠던 학생들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기수와 성적이 비례하지 않았다. 그러나 배운 학기 수에 상관없이 담임반의 성적보다 전담반의 성적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이 중학교의 음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성적을 평균 낸 결과 학생들의 응답과 성적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중학교의 전담반을 제외하고는 '매우 도움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과 실제 성적과는 차이가 났다. 그러나 전담반과 담임반을 비교하였을 때 모든 항목에서 전담반이 담임반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업의 흥미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평균점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담반과 담임반의 차이도 보이지 않았고 흥미도에 상관없이 성적이 분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흥미도와 성적은 비례하지 않았다.

## V. 결론

교과전담제는 1992년 초등교사의 수업시수 경감과 수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음악·미술·체육·영어 교과에 한하여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시행 후 담임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2-3시간 경감시켜 주었으며 교육의 질 향상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미흡하여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음악교과전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음악전담교사가 음악수업을 했을 때 학업성취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음을 증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위하여 서울 소재 1개의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수원 소재 1개의 중학교 2학년 학생 총 214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초등학교 때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웠던 학생은 121명, 담임교사에게 배웠던 학생은 93명으로 분류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교사에게 배웠던 경험보다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웠던 경험이 중학교에 진학한 후 음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전담반 학생들은 ‘음악이론’, 담임반 학생들은 ‘가창’ 영역이 도움 된다고 하였다.

둘째, 적당한 초등학교 음악교사로 담임교사보다 음악전담교사를 선호하였으며 전담반 학생들이 음악전담교사를 더 선호하였다. 음악전담교사를 선호하는 이유에 과반수의 학생들이 ‘특수교과이므로 전공자에게 배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담임교사를 선호하는 이유에 ‘나에 대하여 잘 알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셋째, 음악전담교사가 담임교사보다 반주 실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음악교사의 자질은 학생과 교과목에 대한 ‘지도력’이라고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생각하였으며 실기능력이 뛰어난 교사보다 음악이론에 대하여 많이 아는 교사를 선호하고 있었다.

넷째, 음악수업을 통하여 ‘음악적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 전담반과 담임반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창의적 사고’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므로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를 길러주기 위하여 음악수업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이 필요하다.

다섯째,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은 약 60%의 학생들만이 매 시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대답하였으므로 음악시간에 음악수업 외에 다른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음악이 주요과목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발생하는 결과이다.

여섯째, 초등학교 때 수업의 흥미도는 전담반과 담임반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긍정적인 대답과 보통의 대답, 부정적인 대답의 비율이 두 그룹 모두 비슷하였다. 음악전담교사와 담임교사 모두 ‘가창’ 영역을 중점으로 수업했으며 ‘창작’ 영역 수업이 부족하였다.

일곱째, 중학교 수업의 흥미도는 두 그룹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재의 음악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음악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초등학교 때 음악을 가르친 교사의 대상과는 상관이 없었다. 중학교는 ‘음악이론’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창작’ 수업은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도 가장 낮은 결과가 나왔다.

여덟째, 음악교과는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공교육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음악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현재의 음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음악이론’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59.6%를 차지하여 음악 사교육이 실기 보다 이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운 학생들과 담임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음악성적을 조사하였다.

음악성적을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담반 학생들은 담임반 학생들 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둘째, 전담반 학생들의 배운 학기 수와 음악성적과의 관계에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학교 모두 학기 수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담임반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이 현재의 음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업의 흥미와 성적과의 연관성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이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때 음악전담교사에게 음악을 배운 학생들의 중학교 음악성적은 담임교사에게 음악을 배운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하여 약 5점정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 때 음악전담교사에게 배웠던 경험이 중학교의 음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대답한 비율이 담임반 보다 높았으나 실제 성적과는 비례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항목의 전담반과 담임반의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모든 항목에서 전담반이 담임반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때 음악전담교사가 음악을 가르친 학생들과 담임교사가 음악을 가르친 학생들 중 음악 사교육을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음악성적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음악전담교사가 음악수업을 했을 때 학업성취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가 음악교과전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어 올바른 초등학교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곽영우 외(1998).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론. 교육과학사
- 길애경 외(1996). 초등음악지도법. 수문당
- 성경희(1988). 음악과교육론. 갑을출판사
- 안규(1973). 신교육 원리. 학문사
- 이옥형 외(2005). 교육심리학. 집문당
- 이용일(2003). 음악교육학개론. 현대음악출판사
- 이진우 외(2004). 유아 음악 교육. 창지사
- 장호(2006). 중등학교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예술
- 최시원(1996). 음악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서출판 다라
- 호퍼, C. R. 안미자 역(2001). 음악교사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호퍼, C. R. 안미자 역(1993). 음악교육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Gordon, Edwin E.(2003). *Learning Sequence in Music*. Chicago: GIA Publications

### 2. 기타자료

- 임미경 외(2003). 교육인적자원부. 교과교육 전담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 교육부(1992). 지역실정에 맞는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 실시방안 협의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음악과 교육과정 2007 -79호 [별책12]

### 3. 학위논문

- 권민정(2001).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전북  
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유정(2002). 음악 교과 전담제가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희(2005). 경기도내 초등학교의 음악교과전담교사제 운영 현황 분석.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희자(1997). 교과전담 교사와 담임교사가 수행한 음악 수업에 따른 음악 이해 성취도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유종숙(2005). 음악교과전담교사가 수행한 초등학교 음악수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효주(2004). 초등학교 음악교과 전담제의 필요성과 현황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4. 신문

- 한겨레 신문. 2005년 10월 1일. 초등 예체능 과목 전담교사에게 맡기자
- 한겨레 신문. 2003년 4월 21일. “어떻게 가르쳐야” 교사들 기피과목

#### 5. 사이트

- <http://www.moe.go.kr/> 교육인적자원부(2006). 주요정책자료. 1631번 초등 교과전담 교사 현황

#### 6. 사전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4). 교육학용어사전. 도서출판 하우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Music Score in Middle School by the Classes of a Dedicated Subject Teacher and a Class Teacher**

**Lim, Ja Kyong**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positive effects of music class by a dedicated music teacher on academic achievement to succeed in settling the dedicated music teacher system. A survey of 214 students in 2nd grade in middle school was conducted to apply the result to the study. Among them, 121 students learned music from a dedicated music teacher in elementary school, but 93 student got music class by a class teacher.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drawn as follows.

First, student's experience with a dedicated music teacher had more positive effects on music scores than that with a class teacher after they entered a middle school.

Second, students preferred a dedicated music teacher to a class teacher for music class in elementary school.

Third, the interest in music class in elementary school tended to be very similar between classes by a dedicated music teacher and a class teacher.

Fourth, most of students were interested in music class in middle school.

Music scores of 126 students, who had not taken private music lesson, were investigated to compare the scores of student who learned music from a dedicated music teacher and those who learned from a class teacher.

After comparing music scores, the results were found as below.

First, students from class by a dedicated music teacher obtained 5 score higher than students from class by a class teacher.

Second, the music scores of students from class by a dedicated music teacher presented higher scores than that of students from class by a class teacher in general regardless of the frequency of terms which they had taken class by a dedicated music teacher.

In conclusion, after the average of music scores of students who learned music by a dedicated music teacher and who learned it by a class teacher was compared, it was found that music class by a dedicated music teacher had more positive effects on academic achievement. The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dedicated music teacher system.

<부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음악교과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해 준 내용은 여러분의 성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니 솔직하게 대답해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07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임 자 경 드림

\* 다음 문항을 읽어 보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

성별:	번호:	이름:
1학년때:	반	번

<p>2-1. 초등학교 때 음악교사는?</p> <p>* 한 학기이상 배웠다면 음악교사로</p> <p>* 한 번도 배운적 없다면 담임교사로</p>	
<p style="text-align: center;">1) 음악교사</p> <p>2-2. 음악교사에게 배웠던 학기는? (해당 학기에 모두 O 표시)</p> <p>3학년 1학기    2학기</p> <p>4학년 1학기    2학기</p> <p>5학년 1학기    2학기</p> <p>6학년 1학기    2학기</p>	<p>2) 담임교사</p>

3-1.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이 현재의 음악성적에?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도움이 된다.
- 3) 보통이다.
- 4) 도움이 되지 않는다.

3-2. 도움이 된다면 어떤 부분?

- 1) 가창    2) 기악    3) 창작
- 4) 감상    5)음악 이론

4-1. 초등학교 음악교사로 누가 적당한가?	
<p>1) 음악교사</p> <p>4-2. 이유는?</p> <p>1) 음악 이론에 대해 많이 알기 때문</p> <p>2) 실기 실력이 좋기 때문</p> <p>3) 음악은 특수한 교과이므로 전공자에게 배워야 하기 때문</p> <p>4) 음악교사가 나를 잘 모르므로 대충해도 되기 때문</p>	<p>2) 담임교사</p> <p>4-3. 이유는?</p> <p>1) 나에게 대해 잘 알기 때문</p> <p>2) 다른 과목도 담임교사에게 배우기 때문</p> <p>3) 교실 이동이 번거롭기 때문</p> <p>4) 주요한 과목이 아니므로 전공자에게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p>

5. 초등학교 때 음악을 가르친 교사의 반주 실력은?

- 1) 매우 뛰어났다.      2) 뛰어났다.  
 3) 보통이다.            4) 뛰어나지 않았다.

6. 음악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 1) 창의적 사고      2) 풍부한 정서  
 3) 음악적 능력      4) 음악의 생활화

7.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은 어떻게 시행되었나?(2,3,4번 중 중복 표시 가능)

- 1) 매 시간 정상적으로 음악수업이 이루어졌다.  
 2) 음악 시간에 다른 교과목을 배운 적이 있다.  
 3) 음악 시간에 자율학습을 한 적이 있다  
 4) 음악 시간에 다른 과목의 시험을 본 적이 있다.

8. 음악교사가 갖추어야 할 것은?

- 1) 실기 능력      2) 음악 이론      3) 지도력      4) 이해심

9.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은?

- 1) 매우 재미있었다.      2) 재미있었다.  
3) 보통이다.      4) 재미없었다.      5) 매우 재미없었다.

10. 초등학교 때 음악수업에 치중한 부분은?

- 1) 가창      2) 기악      3) 창작  
4) 감상      5)음악 이론

11. 현재 중학교의 음악수업은?

- 1) 매우 재미있다.      2) 재미있다.  
3) 보통이다.      4) 재미없다.      5)매우 재미없다.

12. 현재 음악수업 치중 부분은?

- 1) 가창      2) 기악      3) 창작  
4) 감상      5)음악 이론

\* 학교 정규수업 외에 음악레슨을 받은 적 있는 사람만 대답 하세요.

13. 현재 음악레슨을 받고 있나?

- 1) 받고 있다.      2) 받고 있지 않다.

14. 음악레슨을 몇 년 받았나?

- 1) 1년 미만      2) 1년 이상 - 3년 미만  
3) 3년 이상 - 5년 미만      4) 5년 이상

15-1. 음악레슨이 현 음악 성적에?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도움이 된다.
- 3) 보통이다.
- 4)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2. 도움이 된다면 어떤 부분?

- 1) 가창
- 2) 기악
- 3) 창작
- 4) 감상
- 5)음악 이론

\* 지금까지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